

<2015년 12월 9일 수요말씀>

갖추고 행하면서 차원을 높여라

본 문 열왕기상 5장 18절

『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
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목과 돌들을 갖추니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,
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주일말씀에 이어서 ‘차원’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사람들은 죽어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.

<시간>도 ‘흘러간 시간’은 죽은 것이듯,
<사람>도 ‘지나간 삶’은 죽은 것입니다.

◆ 모두 살아서 돌아다니니, ‘**과거**가 죽었다는 것’을 모릅니다.

◆ <육>이 살아서 돌아다니니, ‘**영혼**이 죽었다는 것’을 모릅니다.

- ◆ 그렇다면, 어떤 영이 ‘죽은 영’ 일까요?

〈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주관권을 벗어난 영〉은

‘죽음의 선, 사선(死線)을 넘어서 사는 영들’ 입니다.

그러나 〈육〉은 살아 있으니,

〈육〉이 ‘주의 말씀’ 대로 행한다면,

〈육〉도 〈영〉도 ‘생명의 주관권’ 으로 돌아옵니다.

- ◆ 그러나 〈육〉이 살아 있는데도

다시는 ‘빛으로 소생할 수 없는 영’ 도 있습니다.

곧 그 사고와 생각과 행위가 아예 ‘사망권’ 에 처해서

자신의 행위를 ‘선’ 으로 여기면서

‘악’ 에 속해 사는 자들의 영입니다.

이런 자들의 〈영〉은 아예 ‘사망에 속한 영’ 으로 죽어 버려

다시는 빛 가운데로 나와 소생하지 못하고

다시는 ‘생명권’ 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끝납니다.

- ◆ 이단에 속해 사는 자, 우상에 속해 사는 자,

악에 속해 사는 자, 하나님과 주를 믿지 않고 사는 자들은

그 〈육〉도 〈영〉도 거의 ‘사망’ 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.

이들은 〈육〉이 ‘사망권’ 에 속해 살다가 죽으면,

그 〈영〉도 영원히 ‘사망권’ 에 묻힙니다.

더러는 〈육〉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주를 믿음으로

그 〈영〉도 점점 소생하여 빛으로 나오기도 합니다.

더러는 〈영〉이 영계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어

점점 소생하기도 합니다.

- ◆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삽니다. 왜요?

<육의 삶>만 생각하면서 사니,

<영의 삶>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입니다.

<영의 세계의 것들>은

결국 ‘육의 뇌’를 통해 ‘생각과 기억’으로 전달받습니다.

고로 <뇌>가 굳거나 늡거나

<생각>이 온전치 못하고 흐리멍덩하면

영의 세계의 것들을 전달받지 못하고,

혹여 전달을 받더라도 흐릿하게 받습니다.

- ◆ 자기 육이 잠을 잘 때 꿈에서도

<자기 혼>이 영의 세계를 보기도 하고,

자기 육이 활동하는 생시에서도

<자기 혼>이 영의 세계를 접해서 보기도 합니다.

많은 것을 봐도 생각이 나지 않고, 인지를 못 할 때가 많습니다.

그러나 기도하고 영계에 깊이 들어가면 ‘생각’이 총명해져서

<혼이 본 것들>을 ‘뇌’에서 거의 기억하고,

혹은, 육의 생각을 떠나서 <혼과 영>으로 직접 보기도 합니다.

- ◆ 사람들은 ‘자기 차원의 것들’만 보고 느끼고 삽니다.

고로 ‘그다음 차원의 것들’은 모르고 삽니다.

◎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요.

- ◆ 차원을 높여야 ‘상황’도 다르게 보이고,
‘답’도 다르게 받습니다.

- ◆ 여러분이 <자기 차원>에만 있으면,
그 차원에만 처하고, 그 차원의 답만 받게 됩니다.

- ◆ 차원이 같아야 ‘답’도 같습니다.
차원이 다르면 ‘답’도 다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◆ 차원이 **같으면** ‘답’도 같지만, 차원이 **다르면** ‘답’도 다르다.

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, 알아듣도록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
<차원>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- ◆ <갓난아기>가 배가 고픈데, **어른 식단**으로 밥을 주면 안 맞겠지요?

<어른>이 배가 고픈데

갓난아기 식단으로 밥을 줘도 역시 안 맞습니다.

<각자의 차원>대로 ‘답’을 줘야 ‘문제’가 해결됩니다.

고로 차원이 다르면, ‘답’도 다르다는 것입니다.

- ◆ <부자>가 <보통으로 사는 자>에게
“땅도 1000평을 사고, 집도 100평으로 지어라.” 하면서,
‘상(上)차원의 방식과 답’을 주면,
‘중간 차원에 사는 자’에게는 안 맞습니다.

그 방식대로 행하다가는 망합니다.

<각자의 차원>대로 ‘답’을 줘야 됩니다.

고로 차원이 다르면, ‘답’도 다르다는 것입니다.

- ◆ 가령 집을 사려 하는데, <아파트>를 산다 합시다.

그러면 아파트 차원대로 ‘계산’이 나오고 ‘답’이 나옵니다.

<별장>을 사거나 <땅에다 지은 집>을 산다면,

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와는

‘계산’도 달라지고 ‘상황’도 달라지고 ‘답’도 달라집니다.

- ◆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.

하나님의 역사는 <구약 - 신약 - 성약>으로

한 단계씩 차원을 높여 펼쳐져 왔습니다.

▶ <구약 차원>에 따라서

법도 다르고, 상황도 다르고, 답도 다르고,

하나님이 대하시는 것도 다릅니다.

<구약>에서는 모든 법이 ‘종의 법’이고,

모든 상황이 ‘종의 입장’이고,

모든 말씀과 답이 ‘종급’이고,

하나님이 대하시는 것도 ‘종에게 주는 사랑 차원’입니다.

▶ <신약 차원>에 따라서

법도 다르고, 상황도 다르고, 답도 다르고,

하나님이 대하시는 것도 다릅니다.

<신약>에서는 모든 법이 ‘자녀 법’이고,

모든 상황이 ‘자녀 입장’ 이고,
모든 말씀과 답이 ‘자녀급’ 이고,
하나님이 대하시는 것도 ‘자녀에게 주는 사랑 차원’ 입니다.

▶ <성약 차원>에 따라서

법도 다르고, 상황도 다르고, 답도 다르고,
환경도 다르고, 하나님이 대하시는 것도 다릅니다.

<성약>에서는 모든 법이 ‘신부 법’ 이고,
모든 상황이 ‘신부 입장’ 이고,
모든 말씀과 답이 ‘신부급’ 이고,
하나님이 대하시는 것도 ‘신부에게 주는 사랑 차원’ 입니다.

◆ <구약에 속한 자>에게 ‘신약 식 답’ 을 주면 안 맞습니다.

<신약에 속한 자>에게 ‘성약 식 답’ 을 줘도 안 맞습니다.

◆ 이 시대 <성약 식 답>을 받으려면,
가장 먼저 ‘이 시대 말씀’ 을 배워야 됩니다.

그래야 <이 말씀>이 ‘자신의 답’ 이 되고,
그로 인해 ‘자신의 상황’ 도 달라지고,
‘하나님이 대하시는 것’ 도 달라집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◆ <초등학교 학문>은 아무리 배우고 알아도,
아무리 큰소리치면서 자랑해도 ‘그 차원’ 입니다.

거기서 나오는 답은 모두 ‘초등학교 차원’ 입니다.

그래서 <한 단계 차원>을 높여 ‘중학교 차원’에 가야 됩니다.

◆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.

<구시대 차원>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,
아무리 천둥 번개 치듯 큰소리를 쳐도 ‘구시대 차원’입니다.

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‘구시대의 것’입니다.
<구시대 말씀>은 아무리 차원이 높아도 ‘역시 구시대’입니다.
그들이 아무리 차원 높게 행해도 ‘구시대 구원’입니다.

그래서 반드시

<한 단계 차원>을 높여 ‘새 역사’로 와야 됩니다. <끝>

◎ 지금은 왜 <한 단계 차원>을 높여야 하는지,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

(* 또 설명해 주겠습니다. 다시 화면을 볼까요?) <영상2>

- ◆ <초등학교 6학년>은 ‘초등학교에서 최고 높은 차원’입니다.
<고등학교 1학년>은 ‘고등학교에서 최고 낮은 차원’입니다.

아무리 ‘초등학교 고학년’이 안다고 큰소리쳐도
‘고등학교 저학년’의 수준을 못 따라옵니다.

초등학교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.

◆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.

<구시대의 말>은 아무리 차원이 높아도 ‘구시대’이고,
<새 시대의 말>은 아무리 차원이 낮아도 ‘새 시대’입니다.

아예 차원이 다릅니다.

<구시대>에서 큰소리치면서 ‘최고로 높은 자’ 라도
<새 시대>로 온 ‘아이’ 만 못합니다.

<새 시대>는 ‘아이’ 로 태어났어도 ‘차원 높은 새 시대’ 입니다.
고로 <구시대 어른>이 <새 시대 아이>를 못 따라옵니다.

그래서 반드시

<한 단계 차원>을 높여 ‘새 역사’ 로 와야 됩니다. <끝>

(* 왜 <한 단계 차원>을 높여야 되는지, 또 설명해 주겠습니다.
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

- ◆ 아무리 <100년 된 고욤나무>라도 열매는 ‘고욤 열매’ 입니다.
아무리 <3년 된 어린 참감나무>라도 열매는 ‘참감’ 입니다.

100년 된 고욤나무에서 열린 ‘고욤 열매’ 가 아무리 커도
3년 된 참감나무에서 열린 ‘참감’ 의 크기를 못 따라옵니다.

- ◆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.

<새 시대>는 3년 됐어도 ‘참감 같은 큰 열매’ 가 열립니다.
<고욤나무>를 베고, <참감나무>를 접붙여서 그러합니다.

- ◆ <고욤나무>는 무엇입니까? ‘구시대’ 입니다. ‘자기’ 입니다.
<참감나무>는 무엇입니까? ‘구원자’ 입니다.

모두 <시대 구원자>라는 참감나무를 접붙여야
‘참신부 열매’ 가 열려 ‘구원’ 받고 ‘휴거’ 됩니다. <끝>

- ◆ <고욤나무>는 아무리 커도 ‘고욤나무, 고욤 열매’ 입니다.
 <고욤나무>에서는 절대 ‘참감’ 을 볼 수 없습니다.
 그러나 <참감나무>는 아무리 작아도 ‘참감나무, 참감 열매’ 입니다.

이와 같이 <그 세계>에서는
 ‘그 차원 이상’ 은 못 보고 못 배웁니다.

<차원>에 따라서 ‘상황’ 도 다르고 ‘대함’ 도 다르고,
 ‘법’ 도 다르고 ‘답’ 도 다릅니다.

- ◆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.
<구약>에서는 ‘자녀 열매’ 를 거둘 수 없습니다.
<신약>에서는 ‘신부 열매’ 를 거둘 수 없습니다.

<그 세계>에서는
‘그 차원의 답, 그 차원의 상황, 그 차원의 대함’ 뿐입니다.

<신부 열매>는 오직 ‘성약’ 에서 거둡니다.

- ◆ <성약역사>가 무엇입니까?

성경의 모든 비밀을 밝히고,
 <휴거>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입니다.

- ◆ <휴거>에 대해서 배우고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.

그리고 그 비밀을 밝힌 ‘성자와 분체’ 를 알고,
 어서 ‘이 시대 성령의 역사, 휴거의 역사’ 에 동참해야 됩니다.

그래야 <자기 인생의 목적>도 이루고,
 <하나님의 창조 목적>도 이룹니다!

- ◆ 똑같이 <성약 섭리역사>에 왔어도 각자 ‘차원’ 이 다릅니다.
<구원>도 <휴거>도 ‘자기 삶, 자기 행위의 차원’ 대로 이룹니다.
똑같이 <휴거 700선>을 이뤄도 ‘자기 삶의 차원’ 대로 이룹니다.

- ◆ 모두 ‘차원’ 을 높여야 됩니다.

<고욤나무>에서 한 단계 차원을 높이니,
 <참감나무>가 되어 평생 ‘참감 열매’ 를 얻게 됩니다.

비교가 안 되지요.

하나님의 역사도 ‘한 차원씩’ 높여 왔듯이,
 마지막으로 최고로 차원 높인 섭리역사에서도
 각자 ‘한 차원씩’ 높여야 상상도 못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.

<전환>

- ◎ 계속해서 ‘차원을 높이는 것’ 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.
- ◆ <보통 삶>은 ‘보통’ 으로 살면 되니, 모두 살 수 있습니다.
 그러나 <보통보다 높은 삶>은 ‘보통’ 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.
 고로 ‘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삶’ 이 아닙니다.
- ◆ 지금 이 시대, 이때는 ‘보통보다 높은 차원에서 살 때’ 입니다.
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려면, 계획적으로 올라야 올라갑니다.
오르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나 올라가면 평지라서 쉽습니다.
- ◆ 월명동도 석막리에서 올라갈 때는 경사가 있으니 힘듭니다.

그러나 올라가면 ‘평지’라서 쉽습니다.
<육의 삶>도, <영적 차원>도 그러합니다.

- ◆ 올라가지 않고서는 ‘다음 차원의 것’은 못 얻습니다.
올라가지 않고서는 ‘이상세계’는 못 얻습니다.

- ◆ <휴거의 차원>도 오르기입니다.
오르려면, 하나하나 행하면서 갖추기입니다.
그 차원만큼 올라가면, 그 차원대로 얻게 되고 빛나게 됩니다.

- ◆ 감나무에 올라가서 ‘손이 닿은 곳의 감들’을 다 뺏으면,
거기서 더 올라가야 ‘위에 있는 감들’을 따게 됩니다.

어린 자라도 누구나 오르면, 그 차원의 것을 얻게 됩니다.

<영계>도 ‘오르는 자’가 보고,
<계시>도 ‘오르는 자’가 받습니다.

- ◆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<오르는 자>를 따라서 같이 따라 올라라.
힘들어도 내려가지 말아라.
말씀을 듣기다. - 행하기다. - 실적이다. - 공적이다.
포기하면 ‘10배 더 힘든 삶’이다.
힘들어도 오르면 ‘100배 더 좋은 삶’이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오르기는 힘들고, 내려가기는 쉽습니다.
고로 사람들은 ‘쉬운 길’로 갑니다.
그러나 그 길은 ‘얻는 것’이 적고, 찾아도 ‘얻을 것’이 없습니다.

없는데 찾아야 하니, 찾느라 ‘올라갈 때’ 보다 더 힘듭니다.

- ◆ <새벽 기도 시간>도 ‘시간’에 따라 ‘차원’이 다릅니다.

<새벽 4시>는 ‘땅에서 손이 닿는 곳의 감 따기’입니다.

<새벽 3시>는 ‘감나무로 올라가서 감 따기’입니다.

<새벽 2시>는 ‘감나무의 위로 더 올라가서 감 따기’입니다.

<새벽 1시>는 ‘감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감 따기’입니다.

세상만사 삶의 이치가 그러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끝까지 하는 자>는

해가 질 때까지, 자기 전까지 오르면서 거둡니다.

영계에서 보면 이같이 보입니다.

- ◆ 영계에서 보니

<1층>에는 ‘보통 식당과 잡화점과 상가들’이 있었고,

<2층>에는 ‘쉬는 곳’이 있었고,

<3층>에는 ‘씻는 곳’이 있었고,

<4층>에는 ‘크고 좋은 집’이 있었습니다.

영계에서 보니, 올라갈수록 더 좋았습니다.

- ◆ 그러니 모두 <휴거의 차원, 신앙의 차원>을 높이기 바랍니다!

올라갈수록 편하고 좋습니다. 올라갈수록 누립니다.

- ◆ 눕고 자면 편합니다. 그러나 ‘얻는 것’이 없습니다.

- ◆ 누워 있으면 ‘생각’ 으로 얻고,
앉아 있으면 ‘조금씩’ 얻게 되고,
서서 다니면 ‘그 주관권의 것’ 을 얻고,
뛰어다니면 ‘평소에 얻지 못한 것’ 을 얻게 됩니다.

영계에서 보니 그러했습니다.

차원이 높을수록 ‘좋은 것’ 이 있었고,
그곳에는 ‘사람들’ 이 별로 없어서 내가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.

- ◆ 매일 ‘자기 기회’ 가 옵니다.
그러나 그 기회는 ‘차원’ 을 높여야 잡습니다.

- ◆ 비행기가 뜨고 날면 차와 충돌할 일이 없듯이,
자기가 ‘차원’ 을 높이면
적도, 막는 자들도, 사탄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.

- ◆ 차원을 높이면, ‘주관권’ 이 달라집니다.
차원을 높이면, ‘상황’ 이 달라집니다.
차원을 높이면, ‘답’ 이 달라집니다.
차원을 높이면, ‘환경’ 이 달라집니다.
차원을 높이면, ‘삼위일체의 대함’ 이 달라집니다.

- ◆ 차원을 높여서 사는 자만 압니다.
고로 알려면 ‘차원’ 을 높여야 됩니다.

실제로 ‘차원’ 을 높이려면,

기도하기, 성삼위와 대화하기, 주께 배우기, 알기, 행하기입니다.

◆ 주께 배우고, 기도하고, 성삼위와 대화하면서
하나하나 행하고 갖추야 <차원>이 높아집니다.

◆ 자기가 행하면서 ‘자기 소원’ 을 이루고,
‘자기 차원’ 도 높이고, ‘자기 원하는 것’ 도 얻게 됩니다.

◆ 자기 수고로 ‘땅의 것’ 도 ‘하늘의 것’ 도 얻게 됩니다.

◆ 사람은 ‘언어야’ 힘을 받고 하게 됩니다.

고로 주께 먼저는 배우고, → 그다음은 행하고, →
그다음은 차원을 높이면서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.

◆ <기분>으로 좋아지는 것은 순간이고, 금방 열이 식어 버립니다.

<행함>으로 좋아져야 됩니다.

그래야 실제로 시동이 걸려서 뛰고 달리며 얻게 되고,
실제로 ‘차원’ 이 높아집니다.

◆ <기분의 시동이 걸린 자>는 ‘시동만 걸렸지 가지 않는 차’ 와 같고,
<생활 시동, 행실의 시동이 걸린 자>는 ‘달리는 차’ 와 같습니다.

<기분의 시동>만 거는 데서 끝나지 말고,
<생활의 시동>을 걸고 가기까지 하기 바랍니다.

생명을 관리할 때도 ‘생활의 시동을 걸고 가기까지’ 관리해야
얻고, 누리고, 차원을 높이고, 딴 세계로 가게 됩니다.

<전환>

◎ 조금 더 말씀해 주고, 말씀 마치겠습니다.

- ◆ 예전에는 잘했는데, 주를 따르다가 제 갈 길을 간 자들이 있습니다.

영계에 가서 보니,

그들은 그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신 그때 한때의 그릇이었습니다.

항상 ‘자기 때’가 아닙니다.

나머지는 자기가 ‘책임’을 하며 행해야 됩니다. 그래야 존재합니다.

- ◆ <섭리사를 벗어난 자들>을 영계에서 보면,
아담과 하와 같이 ‘다른 영계’에서 살고 있습니다.

그곳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,

하나님이 사시는 곳과는 <전혀 다른 체계의 영계>였습니다.

고로 ‘복직’은 어렵습니다.

<육계>에서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아도

<영계>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.

- ◆ 성경을 보면

<자기중심대로 하는 가인 편>이 ‘아벨 편’이 되지 않았고,

<신광야의 운명>이 ‘가나안의 운명’이 되지 않았습니다.

오직 <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자>만

‘하나님 편, 아벨 편’이 되었고, ‘가나안의 운명’이 되었습니다.

- ◆ 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생각하면서,

‘설마 해가 질 때까지는 오겠지?’ 하지 마세요.

<해>가 되돌아와서 ‘방향’을 전환하겠습니까?

<이미 운명이 기울어진 자>는 다시 못 옵니다.

- ◆ <운명이 기운 자 본인>은 생각도 안 하는데,
<반대쪽 좋은 편에 있는 자>가 안타까워하면서
‘언제 오나?’ 하고 애간장을 태웁니다.

<자기 기분>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말아요.

<영계와 영의 상황>을 봐야 됩니다.

- ◆ ‘참나무가 소나무 될까?’ 하고 기르지 말아요.

아예 태생이 <소나무>라야

교육하고 가르쳐 줘도 더 좋게 변화됩니다.

그러나 <소나무>라도 ‘ 좋게 되는 것’ 은 어느 정도입니다.

각자 ‘자기 차원, 자기 수준’ 만큼 변화되고 얻고 누립니다.

- ◆ <큰 자>는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자기 몸같이 키우고 만드십니다.

고로 ‘수천 명 중의 한 명씩’ 입니다.

- ◆ 수고만 한다고 해서 ‘큰 자’가 되겠습니까?
월명동보다 크다고 ‘시대 하나님의 궁’이 되겠습니까?
이 소나무가 크다고 ‘저 사연 소나무의 역할’을 하겠습니까?
큰 바위라고 ‘형상석’을 따라가겠습니까?

사람도 그러합니다.

<큰 자>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키우고 만드십니다.

- ◆ 각자 <자기 위치>에서 행하며
<자기 개성>대로 빛나며 사는 것입니다.

그래서 ‘개성의 왕’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

첫째, 각자 <개성의 왕>으로서 ‘자기 위치’에서 빛나며 살고
둘째, 그 <개성의 왕들>이 ‘핵’을 중심으로 어우러져
<하나님의 섭리역사>를 빛내는 것입니다.

- ◆ 이에 대해 ‘월명동 비유’를 들어 볼게요.

<월명동>에는 운동장, 잔디밭, 야심작, 돌 조정,
산책로, 호수 등 각각의 장소가 있고,
수백 개의 사연 돌과 사연 나무들이 있습니다.

이 모두가 ‘오직 성삼위의 구상’ 대로
서로 어우러져 하나 되어 <자연성전>을 빛내고 있습니다.

<섭리인들>도 각각 ‘개성체’이지만
오직 ‘주의 가르침과 교육’으로 성장하고 행하며,
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해 주면서
<전체>가 하나 되어 월명동같이 되면 더 크게 빛납니다.

- ◆ <큰 자>와 같이 빛나야 <자기>도 크게 빛납니다.
<큰 자>라도 <작은 자들>과 같이 빛나야 더 빛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큰 자>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자기 몸처럼 키우고 만든다고 했지요?

왜 그럴까요? ‘하나님의 큰 뜻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.

<큰 바위를 옮기는 것>이 ‘인력’으로 되겠습니까?
‘큰 장비’로 해야 됩니다.

이와 같이 <큰 일>은

큰 장비와 같은 ‘큰 사람’을 데리고 ‘하나님’이 하셔야 됩니다.

- ◆ <큰 사람>은 ‘하늘’로부터 타고납니다.

<키 큰 것>도 타고나야 됩니다.

<키 작은 사람>도 ‘다른 것’을 타고납니다.

누구나 ‘타고난 것’이 있습니다.

자기 지체를 보세요. ‘손가락’도 길고 짧은 것을 타고납니다.

<하늘로부터 타고난 큰 자>도 그러합니다.

- ◆ 그러나 <타고난 자>는 깊이 봐야 보입니다.

<형상석>도 그냥 보면, 일반 돌과 비슷해 보입니다.

그러나 자세히 보면 ‘형상’을 타고나서 다르게 보입니다.

주도, 시대 하와도, 사도도, 선지자들도

<타고난 자>로서 ‘삶’이 다릅니다.

- ◆ <땅으로부터 타고난 자>가 있고 <하늘로부터 타고난 자>가 있는데,
<하늘로부터 타고난 자>는
작게든 크게든 ‘성삼위’를 쳐다보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삽니다.

- ◆ <많이 타고난 자>는 많이 행하여 솟아납니다.
- ◆ 그러나 타고났다고 해서 그냥 두면 빛나지 못합니다.
타고난 만큼 가꾸고 행해야 됩니다.
첫 번째는 ‘타고나기’ , 두 번째는 ‘만들기’ 입니다.
- ◆ <타고난 자>라도 처음에는 찾기 힘듭니다. 키워야 됩니다.
<치타>도 키워야 지상을 날면서 사냥하고, 호랑이와도 겨룹니다.
- ◆ <타고난 자>라도 만들어야 됩니다.
그래서 <조금 타고난 자>도 많이 만들면, 확실히 표가 납니다.
- ◆ <타고난 기본>은 못 고칩니다.
<월명동의 산들>은 ‘낮게’ 타고나서 ‘높게는’ 못 만듭니다.

그러나 개발하고, 돌을 세우고,
나무를 심어 가꾸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.

사람도 그러합니다.
그러니 “나는 타고난 것이 없다.” 하지 말고,
각자 ‘개성의 타고난 것’ 을 찾고 개발하고 가꾸어
<월명동>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!
- ◆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가꾸어라. <가꾸는 것>은 ‘자기 개발, 자기 변화’ 다.
다 귀하니 가꾸어라.

그리고 <크게 타고난 자>와 일체 되어라.

그러면 ‘너도 같이’ 빛난다.

옆에 <궁궐>이 있으면,

옆에 ‘잘 만들어진 건물들’ 도 같이 빛나듯,

<크게 타고난 자>와 일체 되면 ‘같이’ 빛난다.

<큰 바위>를 세우니 ‘그 지역’ 이 같이 빛나듯

<큰 자>가 있으니 ‘그 주관권’ 이 같이 빛난다.

이와 같이 <하나님, 성자, 나 성령>이 옆에 있으면

‘인생들’ 이 같이 빛난다.” (하셨습니다.)

◆ <핵>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‘가치’ 가 달라집니다.

<핵>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‘빛의 강도’ 가 달라집니다.

모두 <개성의 왕들>이 되어 ‘자기 위치’ 에서 개성대로 빛나되,

꼭 <주의 교육>을 받고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를 앞세우고 뛰어야 됩니다.

그러면 ‘힘’ 이 나고, ‘차원’ 이 높아지고,

‘빛의 강도’ 가 달라져 ‘빛나는 육과 영’ 이 됩니다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